

檀君神話의 服飾史的 意義 (I)

A Costume historic study of TANGUN Mythology (I)

慶州專門大學 衣裳科

專任講師 金貞振

Dept. of Clothing, KyongJu Junior College

Kim Jung Jin

〈 목 차 〉

- | | |
|------------------|--------------------|
| I. 머리 말 | III. 檀君神話의 服飾史的 意義 |
| II. 檀君神話의 文獻的 背景 | IV. 맺는 말
參考文獻 |

〈 Abstract 〉

This study analyzed a costume historic meaning of TANGUN Mythology. TANGUN Mythology have been transmitted from many literatures, but TANGUN Mythology recorded Samgukyusa(Il-Yun) is not false piece or a fiction.

A Costume historic meaning of TANGUN Mythology was studied in the clothing system, meaning of a headgear worn by nobles in court in the Chun-Boo-In three and meaning of bear and tiger. However results are not clear. In addition, the Han stones of Wu Liang Tz'u relates to TANGUN Mythology, but results also are not manifest.

I. 머리 말

服飾은 自然環境과 社會環境에 의한 生活樣式的 表現으로서 특히 古代社會일수록 氣候, 風土, 民族性, 生活樣式 등에 적응하여 發生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服飾의 源流를 찾는 제반 문

제에 있어 紀元 前後에 韓民族의 歷史發展에서 核心的인 役割을 했던 북쪽 扶餘系의 高句麗인의 服飾이 基本 構造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 할 수 있겠다.¹⁾

그러나 위치상으로 볼 때 高句麗는 북쪽에 위치하여 高句麗의 服飾을 추정할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이 北韓에 殘存하고 있으므로 폭 넓은 研究의 제한점이

1) 백영자, 한국의 복식, 경춘사, 1993, p.4.

되고 있으며 그나마 高句麗 古墳 壁畫를 통하여 高句麗 服飾을 추측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우리는 文獻이나 遺物, 繪畫를 통하여 그 時代의 服飾을 추정하는 식으로 하여 服飾史를 研究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現存 資料들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服飾史 研究가 어떤 限界點에 도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두가지 問題點에 立脚하여 볼 때 우리 韓民族의 始祖神話의 이야기인 檀君神話는 중요한 문헌자료로 사료되어 研究資料로 선택하게 되었다.

檀君神話에 대한 研究는 解放以後 歷史學 方面에서 김정학(1954), 김연학(1969), 이병도(1976), 이홍직(1971), 이기백(1975), 김정배(1973), 전관우(1972), 송호수(1983), 考古學 方面에서 김재원(1977), 김태곤(1968), 임동권(1975), 宗敎學 方面에서 유동식(1975), 정진홍(1980), 최길성(1980), 이은봉(1985), 神話學 方面에서 김열규(1976, 1980), 황패장(1967), 基督教神學 方面에서 윤성범(1964), 精神分析學 方面에서 이병윤(1963, 1985), 철학·사상사 方面에서 이남영(1980), 이을호(1980, 1985), 김용덕(1984) 등 여러분이 각기의 學問의 입장에서 일련의 중요한 論文을 발표한 바 있어서 研究의 限界에 이른 감도 없지 않으나, 동안의 논란되던 여러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檀君神話의 問題는 여전히 새로운 解釋을 기다리는 처지에 있다고 하겠고,²⁾ 제반 분야에서의 많은 研究에도 불구하고 服飾史의 면에서의 研究檢討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으므로 檀君神話 研究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고 服飾史에서의 意義를 알아보고자 研究에 임하게 되었다.

본 研究에서는 檀君神話를 把握하여 檀君神話의 服飾史의 意義를 考察하고, 檀君神話와 武氏祠石室의 畫像石과의 關聯性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육에 불과할 뿐 본 고에서는 단지 추측에 불과한 問題들을 提示하는데 그치고 보다 명확한 研究는 후속의 研究에서 이루고자 함을 밝혀두는 바이다.

II. 檀君神話의 文獻的 背景

檀君이 우리 韓民族의 始祖라고 하여 檀君神話を 전하고 있는 現傳 文獻으로는 三國遺事, 帝王韻紀, 應制詩, 世宗實錄, 輿地勝覽, 東國通鑑, 朝鮮史略, 世家譜 등이 있는데 이들의 내용을 하나하나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三國遺事

三國遺事는 普覺國尊 一然(1206-1289)이 高麗 忠烈王(1275-1308) 때 즉 1270년대 佛敎가 高麗에 가장 성할때 撰述된 것이다. 三國遺事의 紀異篇에 나와있는 古朝鮮條를 引用해 보면 다음과 같다.

古朝鮮 王儉 朝鮮

〈魏書〉에 이르되, 지금으로부터 2천년 전에 檀君王儉이 있어 도읍을 阿斯達(經에는 無葉山이라고 하고 白岳이라고도 하니, 白州에 있다, 혹은 開城 동쪽에 있다 하니 지금의 白岳宮이 그것이다.)에 정하고 나라를 開創하여 朝鮮이라 일컫으니 高(高)와 同時라 하였다. 古記에 이르기를, 옛날에 桓因(帝釋을 이름)의 庶子 桓熊이 있어 항상 天下에 뜻을 두고 人世를 탐내거늘,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三危太伯을 내려다보매 人間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한지라, 이에 天符印 세개를 주어 가서 (세상사람을) 다스리게 하였다. 雄이 무리 3천을 이끌고 태백산 꼭대기(太伯은 지금 妙香山) 神壇樹 밑에 내려와 여기를 신시라 이르니, 이를 桓雄 天王이라 한다. (그는) 風伯, 雨師, 雲師를 지니리고 殺, 命, 病, 刑, 善惡 등 무릇 인간의 360여 사를 맡아서 人世에 있어 다스리고 教化하였다. 그때 一熊과 一虎가 같은 굴에서 살며 항상 神雄에게 빌되, 원컨대 화하여 사람이 되어 지이다 하거늘, 한 번은 신이 신성스러운 쑥 한 자래와 마늘 20개를 주고 이르기를,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아니하면 곧 사람이 되리라 하였다. 곰과 범이 이것을 맡아서 먹고 기하기 37일 만에 곰은 여자의 몸이 되고 범은 능히 기하지

2) 이필영, 단군신화의 기본구조, 백산학보 26호, 1981, pp.9-10.

못하여 사람이 되지 못하였다. 용녀는 그와 혼인해 주는 이 없으므로 항상 神樹 아래서 祝願하기를, 아이를 배어지이다 하였다. 雄이 이에 잠깐 변하여 結婚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檀君王儉이라 하였다. (王儉이) 唐高(효)의 즉위한 지 50년인 庚寅(唐高의 즉위 원년은 戊辰임. 즉 50년은 丁巳요 庚寅이 아니다. 아마 틀린 듯하다.)에 平壤城(지금 西京)에 도읍하고 비로소 朝鮮이라 일컫고 또 도읍을 白岳山 阿斯達에 옮기었는데, 그곳을 弓(혹은 方字도 됨.)忽山 또는 旣於山이라고도 하니, 治國하기 1500년이였다. 周의 虎(武)王이 즉위한 己卯에 箕子를 朝鮮에 봉하매, 檀君은 檀唐京으로 옮기었다가 후에 阿斯達에 돌아와 숨어서 山神이 되니 壽가 1908세이었다고 하였다. 唐의 裴矩傳에는, 高句麗는 본시 孤竹國(지금 海州)인데 周가 箕子를 봉하여 朝鮮이라 하였고, 漢은 三郡을 分置하여 玄菟, 樂浪, 帶方(北帶方)이라 하였다고 하였으며, <通典>도 이 說과 같다.<漢書>에는 眞(番) 臨(屯) 樂(浪) 玄(菟)의 四郡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三郡이라 하고 또 이름도 같지 아니하니 무슨 까닭인가.)

2. 帝王韻記

이것은 李承休(1224-1300)가 1287년에 撰進한 것이다. 李承休는 慶興府 書記로 都兵馬事를 거쳐 두 번이나 元에 使臣으로 다녀왔다. 후에 密直副使, 監察副史, 詞林承旨가 되었는데, 이 帝王韻記는 그가 殿中持使를 그만두고 頭陀山에 은거할 지은 것이다. 帝王韻記에 기록된 檀君神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처음 누가 開國하여 風雲을 열었는가. 釋宰의 손자니, 이름은 檀君이라(<本紀>에 이르기를, 上帝桓因에 庶子が 있었는데 雄이라 하였다 云云. 말하기를, 내려가 三危太伯에 이르러 널리 人間을 이롭게 할지어다 하였다. 고로 雄이 天符印 세 개를 받고 鬼 3千을 거느리고 太伯山頂의 神檀樹 아래 내려 왔으니 이를 檀雄天王이라 한다 운운. 손녀로 하여금 약을 마시고 사람의 몸이 되게 하니 檀樹神과 婚姻하여 사내를 낳아 檀君이라 이름하였다. 朝鮮의 강역을 차지하여 王이 되니, 戶羅, 高禮, 南北沃沮, 東北扶餘, 穢 및 貊이 모두 後孫이

다. 다스린 지 1038년에 阿斯達山에 들어가서 神이 되었으니, 죽지 않은 때문이다. 制효와 함께 戊辰에 일어나 虞를 지나고 夏를 기치며 王位에 있었다. 殷 武丁 8년 乙未에 阿斯達山에 들어가 신이 되었다(지금은 九月山이다. 일명 弓忽이요 또 다른 이름은 三危이니, 祠堂이 아직도 있다). 나라를 누리기 1028년, 어이하리 변화없이 桓因부터 전해짐을. 그뒤 164년에 仁人이 다시 君臣을 열었다(혹은 [이후 164년에 父子는 있으나 君臣은 없었다]고 하였다).

3. 應製詩

陽村 權近이 1396년(조선 태조 5년) 表蓋問題로 명나라에 들어 갔을 때 명나라 皇帝인 漢武帝에게 지어 올린 應製詩 중의 한 수 <始古開國東夷主>에 檀君神話에 대한 記錄이 보이고 있다.

古記에 이르기를, 한얼인 桓因의 아들 가운데 雄이라는 이가 있다. 이이가 세상에 내려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천부인 3개를 받아, 3,000무리를 거느리고 한백산(太白山=백두산)의 신단나무 아래에 내려오니, 이분을 한웅-한얼임금(桓雄天王)이라 하였다.

桓은 혹 狍달(檀=배달)이라고도 하고, 또 그 산은 지금 평안도의 妙香山이다. 한웅-한얼 임금이 풍백과 우사와 원사를 거느리고 곡식, 명령, 형벌, 질병 및 善惡을 맡고, 또 세상일 360여 가지를 맡아 세상을 잘 다스렸다.

이 때에 곰 한 마리와 범 한 마리가 같은 굴에서 살면서, 항상 雄에게 빌어 사람이 되기를 원하였다. 雄이 약인 신령썩 한몸음과 마늘 20냥을 보내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100날 동안 햇빛을 안 보면, 사람이 되리라 하였다. 곰과 범이 그것을 먹고 범은 룬하지 못했으나, 곰은 3·7날을 기하여 여자가 되었다. 그러나 그가 婚姻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매양 신단나무 아래에서 아기배기를 빌었다. 이에 雄이 자신이 잠깐 사람으로 화해서 婚姻하여 아기를 배어 낳게 하니, 이가 곧 檀君이 되었다. 檀君께서 唐나라 요임금과 같은 때 임금이 되어 나라이름을 朝鮮이라 하고, 처음엔 平壤에 도읍하다가, 뒷날엔 한백산(太白山=白岳)에 도읍하였다.

檀君께서 河伯의 따님 비서갑을 부인으로 삼고, 맏아들 부루를 낳았는데, 이가 곧 東扶餘 임금이 되다. 夏나라 禹임금과 塗山에서 만날 때, 檀君께서 아들 부루를 보내 인사 드리게 하였다. 단군 조선이 우나라(虞舜)와 夏나라 거쳐 商나라 武丁 39년 乙未에 아사달산에 들어가 신으로 화하였다. 이 아사달산은 황해도 문화현 九月山인데, 여기에 檀君의 사당이 아직 있다. 해수가 1048년이요, 이로부터 164년 뒤 己卯年에 기사가 왔었다.

4. 世宗實錄

世宗 14년 尹淮, 申樞 등이 編纂하여 올린 世宗實錄의 地理志 平壤條에도 다음과 같이 檀君神話가 記錄되어 있다.

檀君古記에서 이르기를, 한얼님인 桓人의 아들 가운데 한웅이란이가 있었다. 이이가 세상에 내려가서 사람이 되고져 하여, 한밭산(太白山=백두산)의 신단나무 아래에 내려오니, 이분이 곧 한웅-한얼임금(桓雄天王)이다. 한임이 손녀에게 약을 먹여 사람이 되게 하니, 이이가 신단나무의 神(검)과 혼인하여 사내를 낳으니, 이분이 뒷날 檀君이 되었다. 나라이름을 朝鮮이라 하였는데, 신라, 고구려, 남·북조, 동·북부여, 예와 맥등 모든 나라들이 檀君朝鮮의 뒤다. 檀君께서 非西岬 하백의 따님을 부인으로 삼고, 아들 부루를 낳았는데 이분이 동부여의 임금이 되었다. 檀君이 당나라 요임금과 같은 때에 임금이 되었고, 또 부루를 보내어 禹임금과 塗山에서 만나게 하였다. 나라 다스린 해수가 1048년이다.

5. 輿地勝覽

이것은 1481년(朝鮮 成宗 12년)에 盧思愼, 梁誠之, 姜希孟 등이 편찬한 것으로 이 문헌에도 다음과 같이 檀君神話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한밭산(太白山). 古記에 이르되, 옛적에 한얼인 한임(天神桓因)이 있어서, 다음 아들 웅을 명령하여, 天符三印을 갖고 무리 3,000을 거느리고, 한밭산 꼭대기 발달나무 아래에 내려 가게 하시니, 이곳이 神市이다. 사람의 360여 가지 일들을 맡았다.

이 때에 한 곰이 있어서 항상 신에게 빌어, 사람이 되기를 원하였다. 神이 靈藥을 보내, 곰으로 하여금 먹게 하였다. 곰이 이것을 먹고 화해 여자가 되었다. 神雄이 잠깐 사람이 되어 혼인하여 낳으니 이가 배달임금인데, 나라를 세워 호를 朝鮮이라 하다.

배달임금이 非西岬 하백의 딸에 장가들어, 아들을 낳아 夫婁라 하였다. 하나라의 우임금 때에 아드님 부루를 塗山에 보내어 만나게 해서 인사를 드리게 하였다. 뒤에 부루가 북부여 임금이 되었다. 늙어서 아들이 없어, 뒤이을 이를 빌어 鯤淵에 이르러, 작은 아이를 얻어 기르니 이가 금개구리다.

6. 東國通鑑

東國通鑑은 1484년(朝鮮 成宗 15년)에 徐居正, 鄭孝桓 등이 王命에 의해 編纂한 것으로 신라초부터 고려말까지의 내용이 편년사서로 되어있다. 이 文獻에 수록된 檀君神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방에 처음 임금이 없더니, 한얼사람이 발달나무 아래에 내려 오므로, 나라 사람들이 세워서 임금으로 삼으니, 이분이 檀君(배달임금)이요, 나라 이름은 조선이다. 이 해가 곧 당나라 요임금 무진년이다. 檀君께서 처음엔 도읍을 한밭산(太白山, 백두산)에 세웠다가, 뒤에 평양으로 옮기었다. 은나라 무정임금 8년 을미년(단기 1048)에 阿斯達山에 들어가 神이 되었다.

神들이 살피건대, 古記에 이르기를 단군께서 요를 더우려 무진년에 임금이 되어서 우나라와 하나라를 거쳐 은나라 무정임금 8년 을미년에 阿斯達山에 들어가 신이 되므로 수가 1048년이라 하였으니, 이 말이 의심스럽다. 이제 살피건대, 요는 상원 갑자 갑진의 해에 임금이 되었고, 단군은 그 뒤 25년인 무진년에 임금이 되었는데, 요를 더우려 같이 임금이 되었다 함이 틀린 것이다.

唐나라와 虞나라로 부터 하나라와 은나라에 이르기까지 세상이 점점 야박해지, 한 임금이 5·60년 밖에 자리를 누리지 못하였는데, 어찌 檀君 혼자서 1048년 동안 살면서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는가? 그것이 거짓임을 알 수 있다. 앞 사람들이 이르기를, 이 1048년을 檀氏가 世대를 전해 내

려운 햇수요, 결코 檀君의 수는 아니더라 하였는데, 이말이 이치에 맞다.

근세에 權近이 명나라 태조를 찾아 갔을 때, 이가 權近으로 하여금 檀君이란 제목으로 詩를 지으라 하였다. 權近이 시는 “몇 世代를 전했는지는 모르나, 지나온 해는 천년을 넘었다” 고 하였다. 명나라 임금의 이 말이 옳다 하고, 뒷날 참조하기 위하여 이시를 간직해 두었다.

7. 朝鮮史略

朝鮮史略은 1924년 金宗漢이 저술한 편년체의 역사서적으로 이에 수록된 檀君神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檀君께서 상원 갑자년(단기 124: 서기 앞 2,457) 10월 3일에 나리시어, 무진년 10월 3일에 임금이 되었다가, 경자년 3월 15일에 돌아가시니 임금이 되기에 93년이고, 수는 217년이다.

당나라 요임금 25년 무진년에 나라사람들이 한얼사람을 받들어 임금으로 삼으니, 나라이름을 배달이라 하였다.

한옛적에 한임시대와 한웅시대가 있었는데, 이를 검벌시대라 하였다. 상원 갑자년에 한얼사람이 天符印 3개를 갖고 한밤산 발달나무 아래에 내려와서 한얼교를 베풀어 백성들을 교화시키니, 따라오는 자들이 제자터와 같았다. 무진년 10월에 이 무리들이 그 한얼사람을 받들어 임금으로 삼고 나라이름을 배달이라 하니, 이 분이 곧 배달임금인 단군이다. 이 때 비로소 남녀와 부자와 군신의 길을 가르치고, 의복, 음식, 집 머리를 땅고 덮기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팽우를 시켜 산천들을 다스리고 험하고 평탄한 곳들을 서로 통케하여, 백성들의 살 곳을 정하여 주었다.

단군께서 하백의 따님을 부인으로 삼고 아드님 4분을 두니, 부루, 부우, 부소 및 부여다. 백성들이 병들면 부우를 시켜 의약을 나누어 주고, 산에는 모진 짐승 벌레들이 많으므로 부소를 시켜 불과 산양으로 물리치고, 설유가 소란을 피움으로 부여를 시켜 처서 물리치고, 신지를 시켜 글과 문서를 맡게 하고, 고시를 시켜 농사일을 맡게 하고, 여

수기를 예 땅의 임금으로 삼고 비천생을 남해어른으로 삼아, 모든 지역을 나눠 맡게 하였다.

단군께서 한얼님의 가르침과 명령인 세 한얼말씀을 펴었는데, 이것을 뒷날 발해 고임금께서 기리고 풀어 밝혔다. 단군께서 강화섬 마이산에 제천단을 쌓고 한얼제사를 올렸다.

경인년(단기 23년)에 도움을 평양으로 옮기고, 나라이름을 조선이라 하였다. 동사보감에선 말하기를, 땅이 동녘에 있어서 햇빛이 밝으므로 조선이라 한다라 하였다.

갑술년(단기 67년)에 만아들 부루를 도산에 보내어 하나라 우임금과 맞나게 하였다.

8. 世家譜

이 책의 저자나 저술 년대는 정확히 알 수 없고, 수록된 내용만 여기에 인용한다.³⁾

桓氏. 檀君朝鮮의 시작

한울연 시조 큰 성제의 휘는 儉인데, 검나라의 天王(한얼임금) 한웅의 아드님이다. 처음 동방엔 임금이 없고, 백성들은 풀잎옷과 나무열매로 살며, 여름엔 등우리같이 만든 집에, 또 겨울엔 땅굴 속에 살았다. 이 때 한얼사람이 天符印 3개를 갖고 風伯, 雨師, 雲師 등 3천 무리를 거느리고, 한밤산(太白山, 백두산)에 내려와서, 자신은 한웅이요 아버님은 한얼님인 환인이라 하였다. 못백성을 교화시키시니 이들이 모여 살아, 이 곳을 검벌이라 또 그 분을 검벌 천왕이라 하였다.

이 때 한 꿈이 한얼님께 빌어 한 여자가 되었다. 그는 발달나무 아래에 제단을 쌓고, 여기서 아기 배기를 빌었다. 검벌 천왕 곧 한웅 천왕께서 아내로 삼아 아를 낳으니, 날때 부터 신령스럽고, 커서 聖德이 4방에 뻗치게 되었다. 나라사람들이 戊辰年(唐 25년: 서기 앞 2,333)에 그 분을 받들어 임금으로 삼으니, 이 해 10월에 임금이 되어, 한밤산 밑에 도움을 정하고 나라이름을 震檀이라 하였다. 366조목의 律令을 베풀어 백성들에게 머리 땅고, 덮기와 火食하기와 衣服과 거처의 제도를 가르치고, 임금 신하와 위 아래와 남녀의 구별을 알게 하였다.

3) 안호상, 고대민족사 연구, 사립원, 1985, p.102. 재인용.

임금이 23년 경인년에 도읍을 평양으로 옮기고 나라 이름을 朝鮮이라 하였다. 교화가 4방으로 넓게 퍼져, 나라땅이 동녘은 큰 바다요, 남녘은 열수요, 서녘은 북경 옆의 난하요, 북녘은 흑룡강까지로서, 동·서가 5천여리요 남·북이 6천여리인데, 이것에 구획을 정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공로에 따라 봉하여 주었다.

南夷가 변방을 침범하므로 아들 부여를 시켜 쳐서 물리치고, 59년 병인년엔 서·북녘의 궤유가 장난질을 하므로 또 부여를 시켜 차사 물리쳤다. 단군께서 서녘으로 순시하여 백성들을 어루만져 주고, 제후들을 모아 농사와 누에치기를 권하였다. 93년 경자년에 오르시니, 수가 217살이요, 만아드님 부루가 대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檀君 한배검의 부인 신모비서같은 비서갑후의 따님이다.

이 외에도 揆園史話(北崖子, 조선 숙종 1년 1675년)에 檀君神話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으나 너무 길어 본 고에서의 인용은 생략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이 檀君神話의 내용을 文獻 中心으로 알아보았는데, 問題의 重要性은 이들 중 어느 것이 가장 神話의 原形에 가까운 것인가 하는 점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전하는 내용들이 약간의 차이점들을 보일 뿐 거의 유사하기는 하나 檀君神話의 얘기를 할 때는 三國遺事에 전하는 내용을 의미하는 경우가 거의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三國遺事가 시기상으로 가장 오래되었고 내용상으로도 가장 충실하여 檀君神話에 대한 여러 기록 중에서 가장 원형적인 모습을 보존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이에 따라 다음 내용을 考察할 것이다.

III. 檀君神話의 服飾史的 意義

앞에서 살펴본 檀君神話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 내용은 간략할 지라도 우리나라의 始祖 및 開國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民族性, 人間의 神格化, 古代의 社會, 經濟, 思想 등을 두루 살필 수 있는 면모를 보여 주고 있다. 또한 桓因, 桓雄, 檀君으로 연

결되는 이야기는 古朝鮮의 지배세력이 天孫의 神聖族이라는 神話의 이야기로 볼 수 있다. 이와같은 점에서 檀君神話는 歷史와 神話라는 두가지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⁴⁾

이렇듯 兩面的 性格을 내포한 檀君神話를 내용별로 분석해 보면 대체로 기본 3단계로 구분될 수 있겠다.



〈그림 1〉 檀君王儉 影幀

첫째 天神 桓因은 그의 庶子 桓雄이 인간세상에 뜻이 있음을 알고 三危太伯이 弘益人間 할 만한지라 天符印 3개를 주어 인간세상에 내려 보냈다는 것이고, 둘째 桓雄은 무리 3천을 이끌고 太白山 꼭대기에 내려와서 神市를 건설하고 人間의 360여 가지 일을 맡아 다스리고 教化하였으며, 셋째 桓雄이 웅녀와 길혼하여 아들을 낳은 것이 檀君王儉이고 이가 도읍을 阿斯達에 정하고 朝鮮이라는 나라를 개창하였다는 것이다.(그림 1) 이것이 檀君神話를 構成하

4) 한동환, 단군신화의 분석적 연구, 단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pp.10-11.

는 기본 골격이고 나머지는 지엽적인 내용이다. 그렇지만 이 부수적인 내용들도 神話를 구성하는 내용으로 당시 時代相, 社會相, 思想 등을 전해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에 그 내용에 따라 服飾史的인 意義를 분석해 보고자 하나 檀君神話의 내용만을 가지고 服飾史的 意味를 表出해 내기에는 어려운 점이 매우 많으나 몇가지 점에서 그 意味를 찾아보고자 한다.

하나는 […乃援天符印三個 遺往理之 雄率徒三千…] 이라 하여 桓雄이 하강하면서 天符印 3개와 무리 3천을 거느리고 왔다고 하는데 여기서 桓雄이 부재에게서 받은 〈天符印 三個〉가 무엇무엇인지는 문헌에 전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분명히 알 수 없지만, 崔南善任(1954)은 이 天符印 3개에 대하여 “鏡, 劍 두가지는 분명하며, 鈴, 鼓, 冠 중의 하나가 天符印 3개에 들상된다. 부여계의 인민이 옛부터 冠을 중히 여기고 그 冠巾이 외국인에게 거의 특징시된 사실은 문헌, 실물 양쪽으로 흔적이 많은 바인즉 친신족의 기호라는 점으로 보아서는 鈴, 鼓, 冠 중에서 冠이 가장 유력한 지위에 있지 아니한가를 생각하였다.”고 하였다.⁵⁾ 崔南善任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지만 桓雄이 하강하면서 갖고 내려온 물건에 冠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왜 冠을 갖고 내려왔으며, 그 冠이 누구의 冠이며 형태는 어떠하며 冠이 갖는 服飾史的 意義는 무엇인 것일까 아니면 단지 呪術의 기호로 사용되어진 것인가.⁶⁾

또 하나는 三國遺事의 內容 중 […在世理化時有一熊一虎 同穴而居 常祝于神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동굴에서 축원하는 곰과 호랑이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많은 동물들 중에서도 왜 곰과 호랑이였는가 하는 문제이다.

原始時代인 朝鮮의 朝鮮族은 인간 생활을 하면서

수렵으로 정규의 생산 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곰의 고기는 주요 식품이 되고 가죽은 옷이나 침구로 사용되고 그 뼈는 도구 또는 무기로 까지 만들어졌으며 범의 가죽은 원시 교역물로 朝鮮의 象徵으로 까지 되었다고 하는 것은 官者에 의해서도 알려져 있는 것이다.⁷⁾

인간은 자기의 용모를 꾸미려고 하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다. 아주 옛날 원시시대의 동물 그림의 인물이 동물의 겹질과 꼬리털을 몸에 달거나 身體裝飾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용모를 꾸미는 것은 人類의 歷史가 시작되면서 부터 있었다고 말 할 수 있다.⁸⁾

이렇게 동물의 가죽은 東西를 막론하고 原始時代에는 인간의 본능적 요구인 용모꾸미기에 좋은 재료로 사용되었다.

檀君神話에 나오는 곰과 호랑이의 가죽이 북방계 遊牧民族인 우리 韓民族의 衣生活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었겠는가. 우리나라가 地形學的으로 남방이 아닌 북방에 위치하고 있었던 만큼 곰이나 호랑이 가죽은 방한의 좋은 의복재료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檀君神話를 탄생시킨 上古代人들은 그렇게 선택된 곰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들의 위치를 정립했다고 보아진다.

그 다음은 단군신화에 나타나는 의복관련 내용을 찾아 볼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가. 朝鮮史略 : […始教以男女父子君臣之道 衣服飲食宮室編髮蓋首之制…]

나. 世家譜 : […教民以編髮蓋首 火食衣服居處之制…]

다. 檀君世紀 : […民編髮蓋首服靑衣斗衡諸器悉

5) 최남선, 檀君古記箋釋, 사상계, 1954, p.59.

6) 최남선(1954)님은 중국 고대 문헌인 山海經에 朝鮮을 가리키는 듯한 〈君子國〉의 편에 [衣冠帶劍] 하는 風習을 기록하였으니 이렇게 冠과 劍은 朝鮮系 古民의 特徵으로 알려져 있고, 衣冠이 신성군주의 주술적 기호로 쓰이는 예로는 대양주의 피지군도, 남태평양의 타이티섬, 라이아테아섬 등에서 볼 수 있는데 이들은 神과 동일하다는 의미로서 冠을 쓴다고 하였다.

7) 백남운, 조선사회경제사, 동경, 1927, p.13, 재인용.

8) 신영선 역, 衣의 문화인류학, 교문사, 1990, p.9.

準於宣布市價無處有二 …]

라. 檀君古記 : [… 家屋의 建築과 衣服制度를 시작하고 …]

위와 같이 文獻에 나타난 衣服 관련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 거의 머리와 의복의 형태를 제도화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어 안타까울 뿐이다. 檀君世紀를 통해서 보았을 때 “백성들은 머리를 땀고 모자를 쓰고 푸른 옷(青衣)을 입게 하였고 … ” 라고 약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이 당시 실시된 衣服制度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며 어떠한 衣服制度가 실시되었으며, 이 制度가 후세의 우리나라 服飾의 源流에 어떠한 影響을 미쳤는가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추측할 수 있는 것은 社會가 現代와 같이 平等化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衣服制度가 실시된 것으로 보아 衣服을 통해 신분이 구분되어 있어서 服飾을 통한 階層化가 엄격히 실시된 듯 하다.

이것에 대한 研究는 자료의 한계점이 있기는 하나 좀 더 심도있게 연구될 필요성이 절실하다 하겠다.

이와같이 보호하게나마 檀君神話에 내포되어 있는 服飾史的 意味를 다루어 보았다. 더 나아가서 中國 山東省에는 三國遺事에 나타나는 檀君神話와 적어도 십분까지 내용이 부합되는 神話라고 하여 이 神話에 보이는 檀君神話라 하여 연구되기도 하였다.⁹⁾

본 神話는 武氏祠石室의 畫像石이라 하여 中國 山東省 嘉祥縣의 남쪽 28리 紫雲山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이 畫像石은 당초에는 세 석실이 앞뒤로 있었던 모양이나, 후세에 河水의 범람으로 인하여 흩어 쌓여 그 속에 파묻혔던 것이다. 乾隆 51년(1786)에

黃易이라는 사람이 유지와 함께 이것을 발굴하여 따로 塼으로 祠堂을 세우고 벽에 畫像石을 끼운 것이 지금의 武氏祠石室이다.¹⁰⁾(그림 2)¹¹⁾

이 畫像石은 東西南北 네 벽으로 되어 있고 이 네 벽에 그려져 있는 繪畫 내용은 국내외적으로 연구되었는데,¹²⁾ 국내에서는 우리나라의 檀君神話의 내용과 일맥상통하다고 하여 壁畫內容과 檀君神話 내용을 일일이 조목조목 분석한 연구가 일찍이 이루어 졌던 것이다.¹³⁾

이 武氏祠石室 畫像石의 내용이 실제로 檀君神話의 내용과 일맥상통 한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국내에서 찬반의 양론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¹⁴⁾ 다만 분명한 것은 檀君神話가 모두 文獻相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에 비하여 이것은 畫像石으로 되어 있는 만큼 服飾의 形態, 特色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服飾史的 意義를 分析하는데 진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즉, 武氏祠石室 畫像石의 內容이 檀君神話를 이해하는데 意義가 있는 귀중한 資料이나 흑백이라 명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림 2)를 분석해 보면, 冠帽는 우리나라 古代 冠帽 중의 하나인 幘의 形態와 유사한 冠帽를 대부분 쓰고 있음을 볼 수 있다.

衣服은 4층 오른쪽의 인물은 발을 탄 것으로 보아 貴族인 듯하며 차림새는 外衣의 길이가 매우 긴 袍와 같은 衣服을 착용하고 帶를 맨 것을 볼 수 있다.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무엇인가 열심히 勞動을 하고 있는 듯한데 3,4층의 중앙의 4人を 제외하고는 모두 노동에 편리하고 활동적인 몸에 밀착되는 上衣와 下衣로 細袴를 착용한 것으로 보아 이들은 가장 하층 빈민인 것으로 추측이 된다.

9) 김재원, 단군신화의 신연구, 탐구당, 1974.

10) 김재원, 단군신화의 신연구, 탐구당, 1974, p.74.

11) 이 그림은 그림 제목에서 처럼 後石室 第三石의 3, 4층 그림으로 김재원박사(1974)는 3층 우측에 호랑이 입을 통해 태어난 인물이 곧 4층 우측에 발을 탄 人物 즉 檀君으로 해석하였다. 즉 熊人에서 사람이 태어나는데 본 畫像石에서는 虎人에서 사람이 태어난다고 해석하였다.

12) 憑雲鵬·憑雲鶴·金石索, 1822.

Edouard Chavannes, Mission Archeologique dans la Chine Septentrionale, Paris, 1909.

13) 김재원(1974), 前掲書.

14) 金元龍, 武氏祠畫像石과 檀君神話에 대한 再考, 고고미술 146 147, 한국미술 사학회, 1980.



(그림 2) 武氏祠堂 後石室 第三石 (上:3층, 下:4층)

마지막으로 中央의 4人들은 細袴위에 儀禮相 착용하는 袍를 착용하고 위에 띠를 매었는데 袍의 길이는 앞에서 설명한 貴族의 것보다 매우 짧은 것으로 보아 노동시 불편을 다소 줄이기 위한 것인 듯 싶다. 그리고 3층 中央 오른쪽에 앉아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人物이 착용하고 있는 袍의 소매를 보면 우리나라 古代服飾의 特徵인 襖裝飾 같은 것이 보이고 있어 특이하다 하겠다.

이 武氏祠堂 後石室의 第3石 중 3,4층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古代服飾과 많은 類似點을 찾아 볼 수가 있어 이 畫像石은 古代服飾史 研究에 그 意義가 매우 크다 하겠다.

IV. 맺는 말

이제까지 三國遺事에 수록된 檀君神話를 중심으로 부족하게나마 檀君神話의 내용 구성 중 服飾史的 意味를 갖는 요소들을 표출시켜 그 의미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서두에서도 이미 언급되었듯이 본 고에서는 문제만 제기되었을 뿐 확실히 결론이 내려진

부분은 하나도 없다.

古朝鮮 時代에 실시된 衣服制度 라든가, 곰과 호랑이가 갖는 服飾史的 意義, 天符印 3개 중 冠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冠이 주는 意味 등이 모두 막연하게 종결되고 있다. 나아가서 武氏祠石室의 畫像石이 檀君神話에서 갖는 意義 등은 하루 빨리 명확히 研究되어져야 할 課題라고 생각한다.

이 모든 것들이 資料의 한계성에서 오는 結果이므로 하루 빨리 사정된 資料들을 보충하여 問題로 提起된 것들이 後續의 研究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진할 것이다.

【參考文獻】

- 1) 三國遺事
- 2) 帝王韻記
- 3) 應製詩
- 4) 世宗實錄地理志
- 5) 東國通鑑
- 6) 輿地勝覽

- 7) 朝鮮史略
- 8) 世家譜
- 9) 김재원, 단군신화의 신연구, 탐구당, 1974.
- 10) 강무학, 단군, 도서출판 국문, 1981.
- 11) 교양국사연구회, 이야기 한국사, 청아출판사, 1987.
- 12) 신영선역, 衣의 문화인류학, 교문사, 1990.
- 13) 백영자, 한국의 복식, 경춘사, 1993.
- 14) 임승국 번역·주해, 단기고기, 정신세계사, 1986.
- 15) 안호상, 민족의 주체성과 화랑열, 배달문화연구원, 1967.
- 16) 김은봉, 단군선민의 역사, 도서출판 해인, 1991.
- 17) 한광남, 단군신화의 사상적 의의,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 18) 천화숙, 삼국유사에 나타난 민족의식,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 19) 한동환, 단군신화의 분석적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 20) 임홍순, 단군신화의 어학적 고찰,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 21) 이필영, 단군신화의 기본구조, 백산학보 26호, 1981, 3.
- 22) 김두진, 단군고기의 이해방향, 한국학논총 5집, 1982.
- 23) 서영대, 한민족은 단군을 어떻게 보아왔나, 광장 10, 1985.
- 24) 이재걸, 단군신화연구의 현황과 문제점(I), 국제어문 제3집, 1982.
- 25) 유희경, 선사시대에 있었을 우리 민족복식을 생각하며, 복식 제5호, 1981.
- 26) 한국상고사의 제문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 27) 이상시, 단군실사에 관한 고증연구, 고려원, 1990.
- 28) 송수호, 한민족의 뿌리사상, 가나출판사, 1987.
- 29) 강무학, 단군조선의 실존, 신원출판사, 1983.
- 30) 안호상, 고대민족사 연구, 사림원, 1985.
- 31) 임훈 역, 단군고기, 배달문화원, 1985.
- 32) 이은봉, 단군신화연구, 은누리, 1986.